



6면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개막

전주매일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음 9월 20일) 제360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준비 끝! 환영합니다” 한인비즈 오늘 팡파르

“여러분을 모실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

세계 한상CEO들의 축제인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전북 전주에서 힐찬 팡파르와 함께 성대한 막을 올린다.

오는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는 세계 한인 기업인들에게는 전북의 산업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도내 기업에게는 해외 진출의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동포청과 전북자치도가 공동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대회 사상 처음으로 컨벤션이 아닌 전북대 캠퍼스에서 치러질 예정이어서 더욱 색다른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회에는 '재외동포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심으로'란 슬로건 아래 국내 2,000여명, 해외 1,000여명 등 총 3,000여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한다.

22년간 이어져 온 대회 사상 처음으로 컨벤션이 아닌 전북대학교 캠퍼스에서 치러질 예정이어서 더욱 색다른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대 내 삼성문화회관에서는 개폐회식인, 전북대 실내체육관에서는 환영·환송 만찬, 전북대 운동장에서 세워진 거대 돔에서는 제품 전시회, 진수

맛의 고장 전주에 국내외 한상·바이어 3000여명 운집
컨벤션 아닌 전북대 캠퍼스에서 개최... 색다른 행사 기대
전북지역 중소기업 120개사 참여... 세계 진출 문 '톡톡'

당에서는 각종 세미나와 미팅이 진행된다.

대체로 이번 행사는 기업제품 전시회와 현장 상담 및 계약, 한상 CEO들의 교류 및 소통의 시간, 각종 포럼, 한인 사업가의 성공스토리 공유, 문화예술포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들 기본 행사 이외에도 행사기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전북을 방문한 국내외 한인 기업인들을 찾아간다.

이번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대학 캠퍼스에 설치된 대형돔을 전시관으로 활용한다. 전북대 대운동장 바다 면적 8,200㎡ 안에 부스 326개가 들어서 주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선보인다. 이들 중 160여 개가 전북 도내 기업으로 채워졌다.

대회에 참가하는 1,000명의 해외 바이어 중 이른바 '진성 바이어'이자 큰손인 200여 명 정도로 분류되는데 이는 2022년 울산 대회(30명)보다 월등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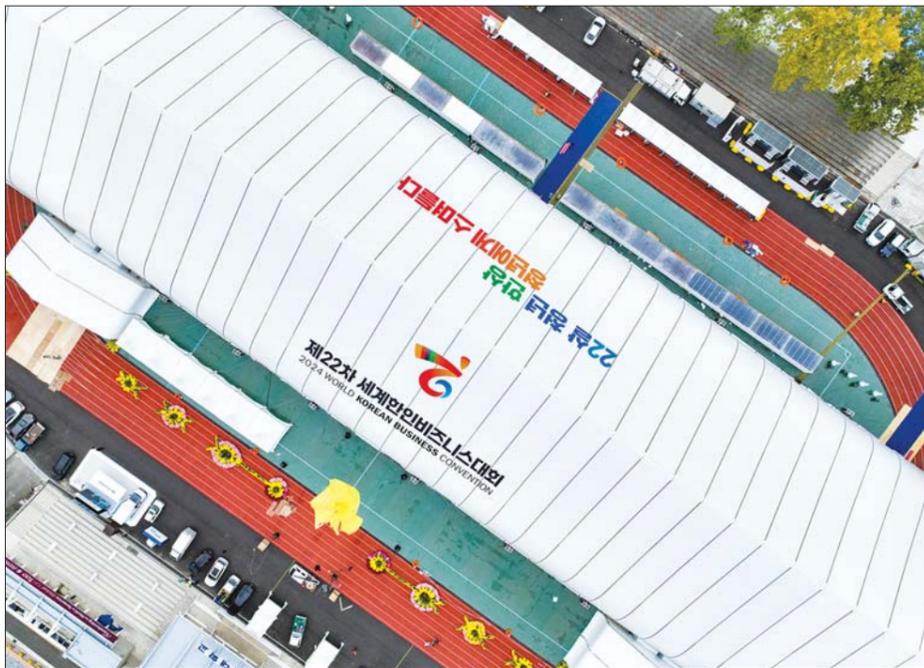
높은 수치다.

전시관 밖에는 전북 14개 시군 홍보 부스와 먹거리 판매대가 설치되고 전시관 정문 바로 앞 바깥 공간에서는 대기업의 야외 전시가 진행된다.

특히 야외 전시될 현대자동차의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과 '유니버스 수소전기 버스', LS엔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 HD현대인프라코어의 3급 소형 굴삭기, 진우에스엔씨의 초소형 전기 소방차, 특장차협회의 캠핑카 등은 국내외 바이어와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인 비즈대회 기간에는 전시제품 구매 상담과 비즈니스 교류 등 본 행사 이외에도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전 세계 한인 사업가와 전문가, 대학생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장도 마련된다.

구체적인 연계프로그램으로는 전주 국제 드론박람회와 국제금융과 신산



세계 한상CEO들의 축제인 '2024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22일 전주에서 힐찬 팡파르와 함께 성대한 막을 올린다. 사진은 하늘 위에서 바라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행사장의 모습이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업을 연계한 글로벌 경제 논의체인 '지니포럼', 일자리 페스티벌, 한인 비즈 CEO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스타트업 경진대회 등이 있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개회식과 환영 만찬은 우리 전통 K컬처 프로그램이 가미되어 한인 바이어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회 기간 내내 각종 문화공연이 주무대인 전북대를 비롯한 시내 곳곳에서 다채롭고 풍성하게 펼쳐진다. 개막 전야제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트롯 쇼'가 펼쳐지고 개막 당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고성삼(부안 위도의 옛 지명)'이 무대에 올려진다. 한인 비즈 대회를 위해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원들이 수개월간 준비한 역작이다. 이는 부안 위도 칠산바다를 배경으로 어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가슴 절절한 사연을 바탕으로 만

들어진 매우 특별한 창작으로 오랜 기간 타국에서 살아온 한인 사업가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을 맞이할 모든 준비를 끝마쳤다"면서, "전주에서 전북의 매력과 가능성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中, 우리 전통문화 침범 실태 '심각'

전통문화 수호 위한 체계적 홍보·관리 필요

여름의 찜 더위가 가고 선선한 10월을 맞이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축제의 함성이 들린다.

통합 축제인 전주 페스타는 3일부터 26일까지 종반을 향해 치달고 있다.

비빔밥 축제, 몇년전 중국 지린성 정부가 성(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조선족 돌솥비빔밥 제작 기예'를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진은 중국 어느 도시에 위치한 돌솥비빔밥 전문점.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감이 든다. 얼마 전 중국에서 돌솥밥을 지방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한복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긴다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몇년전 중국 지린성 정부는 성(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조선족 돌솥비빔밥 제작 기예'를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중국과 문화적 갈등이 꾸준히 반복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전통 도시를 자타 공인하는 전주시도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돌솥비빔밥은 우리의 국가 무형 유산으로는 등재돼 있지 않은 상태다. 전주비빔밥이 2008년 전북의 무형 유산으로 지정돼 있을 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날 23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 내의 한 돌솥비빔밥 프랜차이즈는 조



몇년전 중국 지린성 정부가 성(省)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조선족 돌솥비빔밥 제작 기예'를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에서야 국내에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진은 중국 어느 도시에 위치한 돌솥비빔밥 전문점.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포럼 중 한 발표에 따르면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대표하는 상징적 요리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는 단순히 음식 종목으로는 등재가 불가능하며, 공동체 문화로서의 상징성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체계를 구현하여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러 채소 나물을 함께 먹으로써 건강을 증진한다는 점을 강조해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공동체적인 협동을 도입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비빔밥 문화가 녹아들도록 힘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전주시는 내년에는 더 의견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에서 한식 진흥원, 문화재청과도 함께 비빔밥 등재를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비빔밥과 관련해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마다 비빔밥 명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김정옥 명인 등 3명이 지정되어 있다. 동시에 이들이 명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기술 등에 관한 기록을 남겨서 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해와 광주 등 다른 도시의 비빔밥 축제에도 이들 명인을 소개해서 도움을 주고 전주비빔밥에 대한 홍보 효과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한다.

한편 이번 전주 페스타 축제를 지켜보며, 외국의 문화 침범에 두 손을 놓고 있으면 우리는 지구촌에 내놓을 게 없고, 정체성이 없는 민족으로 전락할 수 있다.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라고 자부하는 전주에서 문화 침범에 적극 대처하고 홍보하는 등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욱기 기자

지역과 함께한 77년
Global Top 100으로
축! 전주매일 창간

미래를 이끄는 전북대 100
Global TOP 100

5년 연속 재학생 대학 만족도

(KS-SQI, 지방국립대 부문)

1위 거점 국립대
1위 비수도권

대학종합 평가 (2023, 중앙일보)

거점 국립대 1위 전국 7위
교육여건 평가 (2023, 중앙일보)

거점 국립대 1위 서비스품질지수(KS-SQI) (2019-2023, 한국문화재단)

거점 국립대 1위 라이언행림 (2024, BODOR CWTS)

거점 국립대 1위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수 (2024, 한국외대)

거점 국립대 1위 외국대학 학점교류 파견 (2024, 한국외대)

전북대학교가 1위인 이유? 학생중심 대학운영 아닐까요?

임시성적과 대학학령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과·전학 제도의 대폭 확대는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전북대학교만의 Only1 교육 시스템입니다.

재학생 대학 만족도가 높은 대학, 선택은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됩니다

24. 10. 22. (화)
~ 10. 24. (목)